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브랜드 가치 손상”

네이버 직원들, 드루킹 재판서 주장…“계속되면 이용자 이탈 불가피”

드루킹측 “네이버에 피해 없어”…네이버측 “공정한 여론 반영 아냐”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댓글조작’ 탓에 회사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법무실 직원인 A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본 건 없다’는 식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자 허익범 특검팀이 네이버 직원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킹크랩’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으로

회사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 기사 서비스는 실제 사람이 읽고, 의사 표현한 걸 공정하게 집계해 나타내 주는 걸 중요 목적으로 삼는 업무”라며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감·비공감을 클릭해서 댓글 순위가 나타난 거라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네이버 서비스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만연하게 되면 이용자의 이탈이 일어나 서비스가 망하게 된다”며 “실제 이런 행위로 댓글 순위가 조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네이버가 비난이나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영향으로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가 올해 1분기보다 2·3분기 때 하락했다는 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A씨는 “실제 이용자들이 탈퇴 인증까지 올리는 등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드루킹 일당은 그러나 자신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었던 건 네이버가 제대로 어뷰징(부정 사용)을 걸러내지 못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또 일일이 손으로 ‘클릭’할 수가 없어 매크

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에 의사를 반영했을 뿐이며, 그로 인해 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일당의 이런 주장에 다른 네이버 직원 B씨는 “매크로 접근을 최대한 필터링하려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청과 방패”의 싸움이라 “왜 막지 못했냐고 질타하면 저희로서 역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어뷰징 차단을 위해 올해 기준 40여 명의 인력과 2천300여 대의 장비, 108억 원가량을 투입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B씨는 또 “이용자의 ‘의사 반영’이라는 목적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 합법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댓글 클릭은 “공정한 여론의 반영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위험작업은 원격으로…2030년 ‘스마트 건설’ 완성된다

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정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는 건설 자동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적 토목건축 기술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신기술이다.

이 기술을 접목하면 건설 대상 부지를 드론이 항공 촬영해 신속·정확하게 자동 측량을 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격 관제로 건설장비들이 자율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건설 선진국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수준으로 현장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로드맵에서 건설기술의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 건설을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건설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드론, 로봇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도입하고 융합할 예정이다.

공정별로 설계 단계에는 측량과 BIM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 모델을 정착시키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자동화를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선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을 개발해 시공 전반을 자동화한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로봇과 드론이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건물 구조를 가상 모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발주제도를 활용해 스마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의 진입장벽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의 유망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기술과의 분장 해소를 지원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핵심기술을 보급할 방침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청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네안테르탈인, 구부정하지 않고 현대 인류보다 더 똑똑

네안테르탈인은 원숭이처럼 구부정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 인류보다 더 똑똑하게 서서 생활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대학 인류학 교수인 패트리샤 크레이머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네안테르탈인의 흉부(가슴)를 가상공간에서 3D로 재구성한 결과, 척추가 현대 인류보다 더 곧고 폐기능도 뛰어났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밝혔다.

‘등이 구부정한 원시인’ 이미지는 19-20세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 1983년 이스라엘 케바라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테르탈인 화석 ‘케바라2(K2)’를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스캔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3D 모델로 만들었다.

‘모셰(Moshe)’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K2는 다른 네안테르탈인 화석과 함께 발견됐으며, 머리뼈는 없지만 현존하는 네안테르탈인 화석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화석의 주인공은 키 167cm, 몸무게 75kg의 몸집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약 6만여전에 살다가 32세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현 기자 jsh9668@

‘혁신 거둬’ 알리바바…700대 ‘로봇군단’ 투입한 물류센터 개장

11월11일 ‘광군제’ 물류처리 속도 높여…인공위성·미니 우주정거장도 발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대규모 ‘로봇군단’을 배치한 첨단 물류센터를 열었다.

31일 알리바바에 따르면 이 회사의 물류 자회사인 차이나오(菜鸟)는 내달 11월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节·독신자의 날)를 앞두고 물류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장쑤성 우시(無錫)시에 운반 로봇 700대를 투입한 첨단 물류센터를 개장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작한 원통 모양의 운반 로봇은 열핏 보면 로봇 청소기와 흡사하게 생겼다.

로봇들은 물류센터 내부에서 서로 충돌을 피하면서 쌓인 배송 물품을 나르거나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차이나오 측은 새 물류센터가 중국 최대 규모의 로봇 물류센터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첨단 물류센터 가동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광군제 배송 물량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광군제 하루 알리바바에서는 1천682억위안(약 28조원) 어치의 물품이 거래됐다. 배송 물량은 8억1천200만건에 달했다.

2009년 시작된 광군제는 첫해 5천만위안이던 매출이 작년 1천682억위안으로 폭증했다. 10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이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나 아마존의



‘프라이 데이’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한편,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 기간 전자상거래 지원용 인공위성과 미니 우주정거장도 발사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욱 띄운다는 계획이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거창에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 문 열어…세종시 이어 두번째

한국천문연구원, mm 거리까지 측정·20cm급 우주물체 추적 가능

한반도 상공의 인공위성을 레이저로 mm 수준 거리까지 측정,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SLR)가 경남 거창군에 31일 문을 열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거창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군은 이날 거창군 신원면과 정리 감악산에서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 준공식을 했다.

SLR은 지상에서 위성체에 레이저를 발사한 뒤 반사돼 되돌아오는 빛을 수신, 위성까지 레이저 왕복 시간을 측정해 정확한 거리를 산출하고, 고정밀 위성 추적에 필요한 정밀궤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최근 우주물체에 의한 인공위성 충돌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다양

한 우주물체에 의한 위협과 자국민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필요성이 증대됐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물체 추적 및 모니터링 분야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 우주 환경감시 능력을 강화하려고 2008년부터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거창 관측소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세종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에 이어 두 번째다. 거창 관측소엔 망원경 크기가 40cm급인 세종 시스템보다 큰 1m 구경 망원경으로 구성됐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방통위, TV수신료 체납 가산금 5%→3% 인하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미납자가 부담해

야 하는 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여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독촉장에도 가산금의 부과 근거를 기재토록 했다.



2018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8

상상된 경계들

IMAGINED BORDERS

9.7—11.11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43개국 165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국가, 세대, 민족 간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고 있는 경계들에 대한 재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로 꾸며지는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인 ‘GB커미션’,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되면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비롯해 광주 전역을 동시대 시각 문화 현장으로 펼쳐냅니다.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광주시내 일원
주최·주관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www.gwangjubienale.org
NAVER NAVER 문화재단 ISU 이수그룹 * 광주신세계
대한유화주식회사 KOREA PETROCHEMICAL, INC. CO. LTD.
영무예다음
Kolon Motors